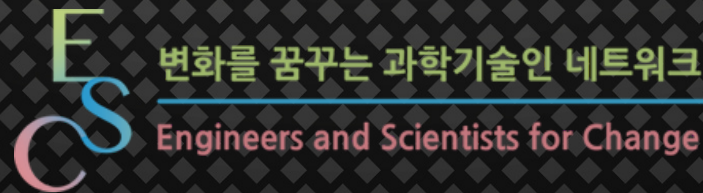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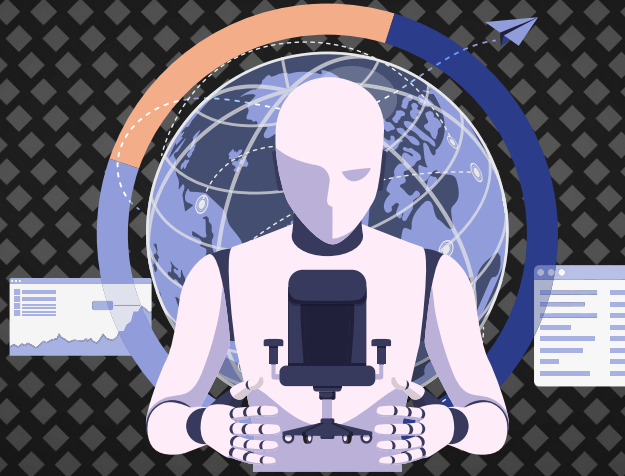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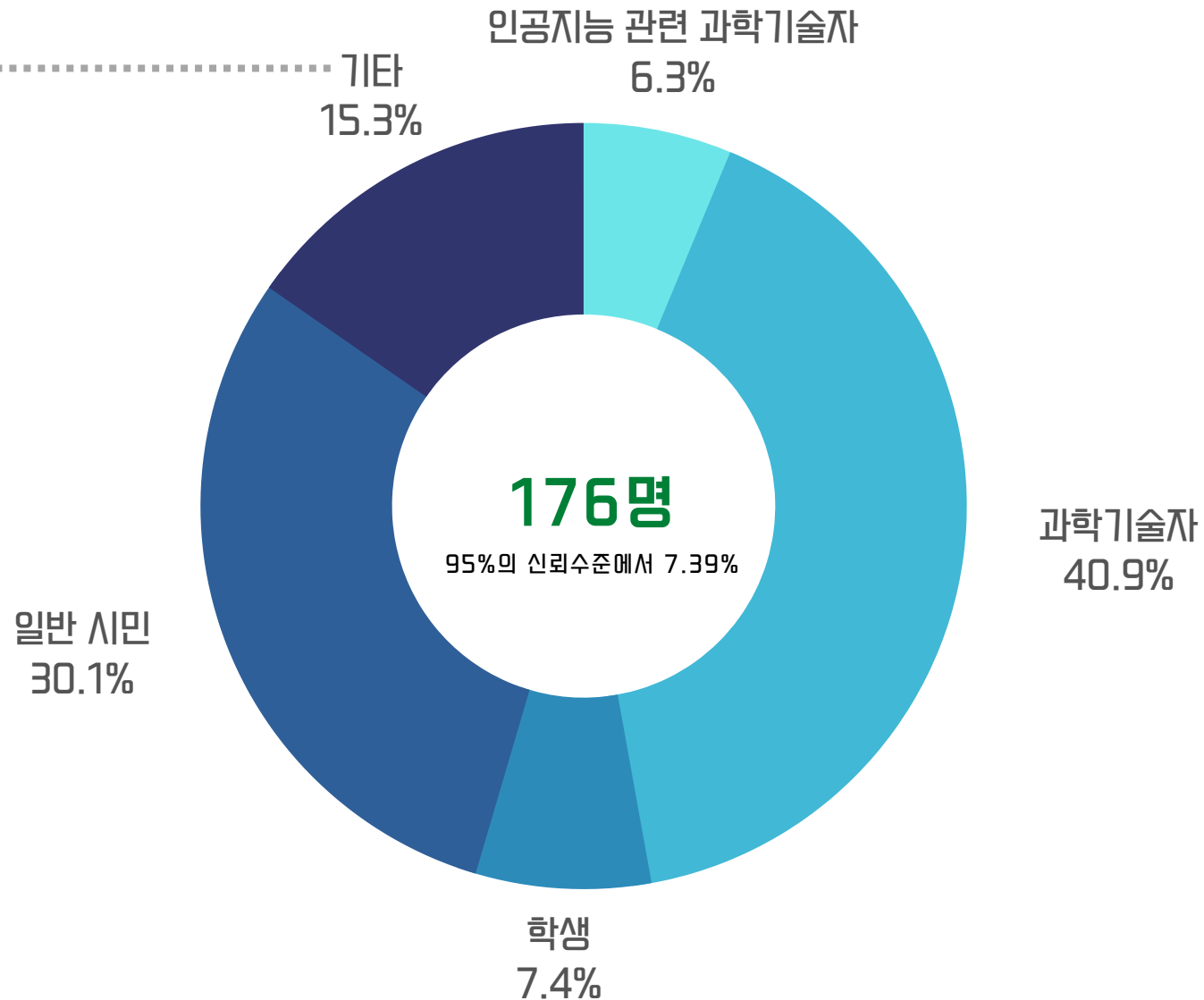
# 'ChatGPT' 사례로 본 AI 생산 저작물 활용에 대한 윤리 인식 설문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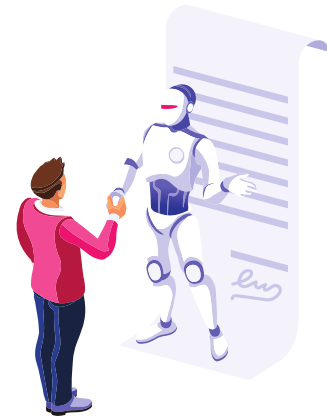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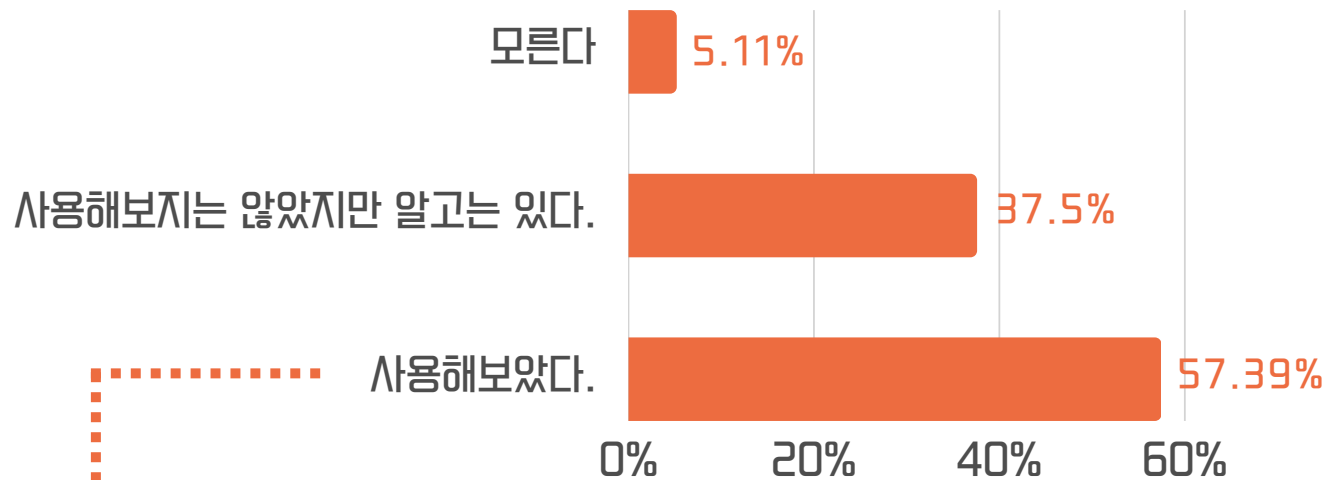
조사 기획 및 보고서 작성 이강수  
2023. 01

# 설문 참여 233명 중 전체 문항 응답을 완료한 **176명**(76%) 대상 분석

- 교양교육 교수자, 연구자 (공학문리, 기술철학)
- 정책전문가
- 언론인
- 과학교육자
- 과학기자
- 출판계 종사자
- 응용윤리학자
- 과학저술가, 작가, 과학 기술학자
- 전문직
- 대학교수
- UIUX
- IT
- 사회과학 연구자 겸 교수
- 건축가
- 사회과학자
- 교사
-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 교육자
- 인문사회 연구자
- 중등 교사
- 인문학자
- 교수
- 연구개발 행정직 종사자
- 문화예술 기획자
- 과학작가
- 과학교육



## Q1. 챗봇 AI 'ChatGPT'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 Q1-1. 'ChatGPT'를 사용해보셨다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저작물(논문, 리포트, 보고서, 기사 등) 작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용도

6.93%

기능 테스트 용도

71.29%

지식을 알기 위한 용도

15.84%

교육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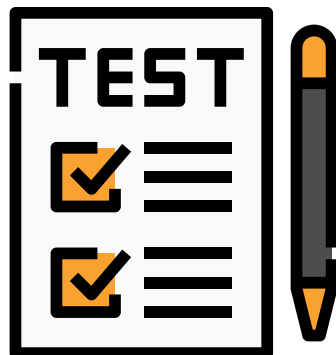
1.98%

연구 용도

0.9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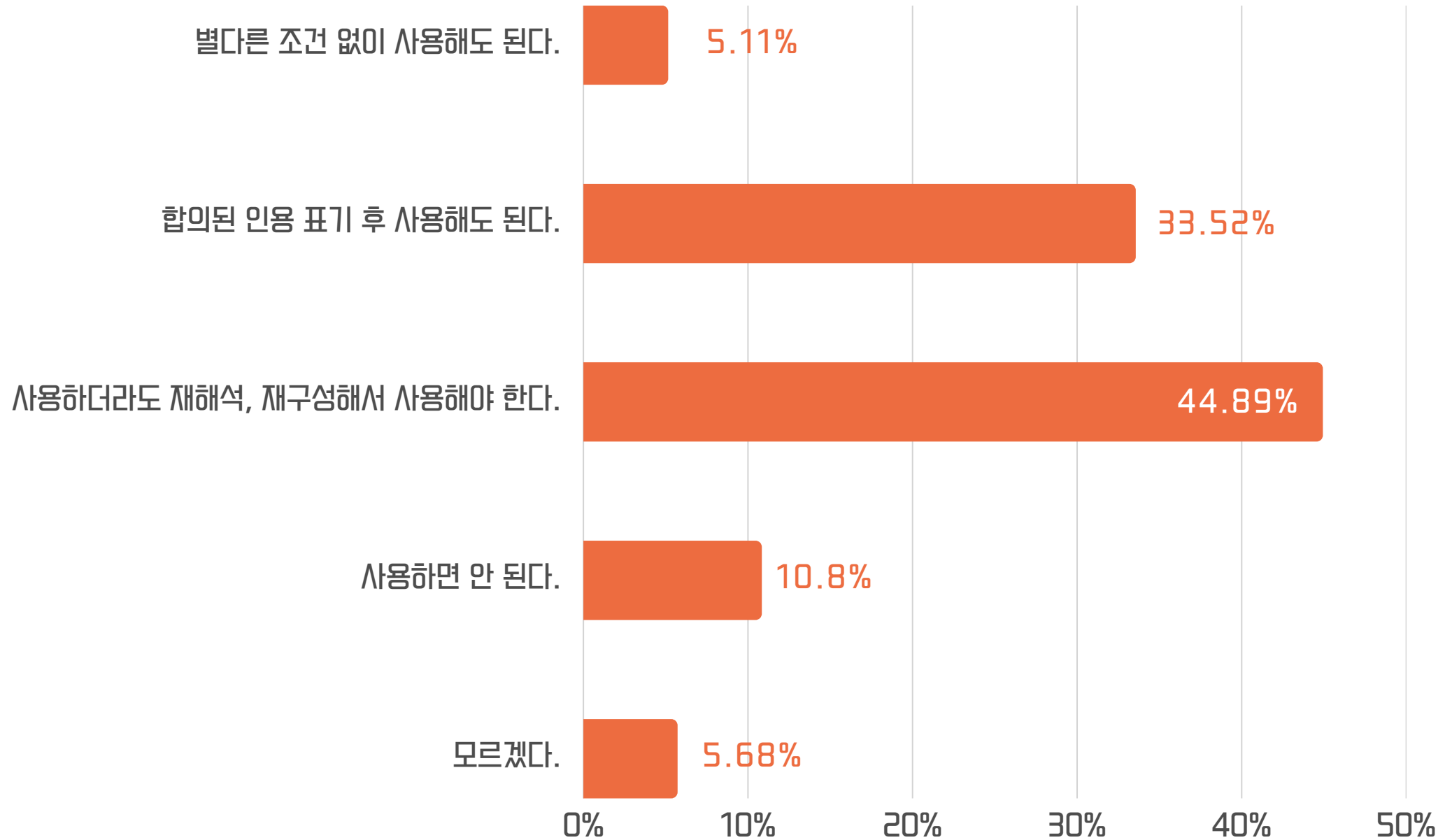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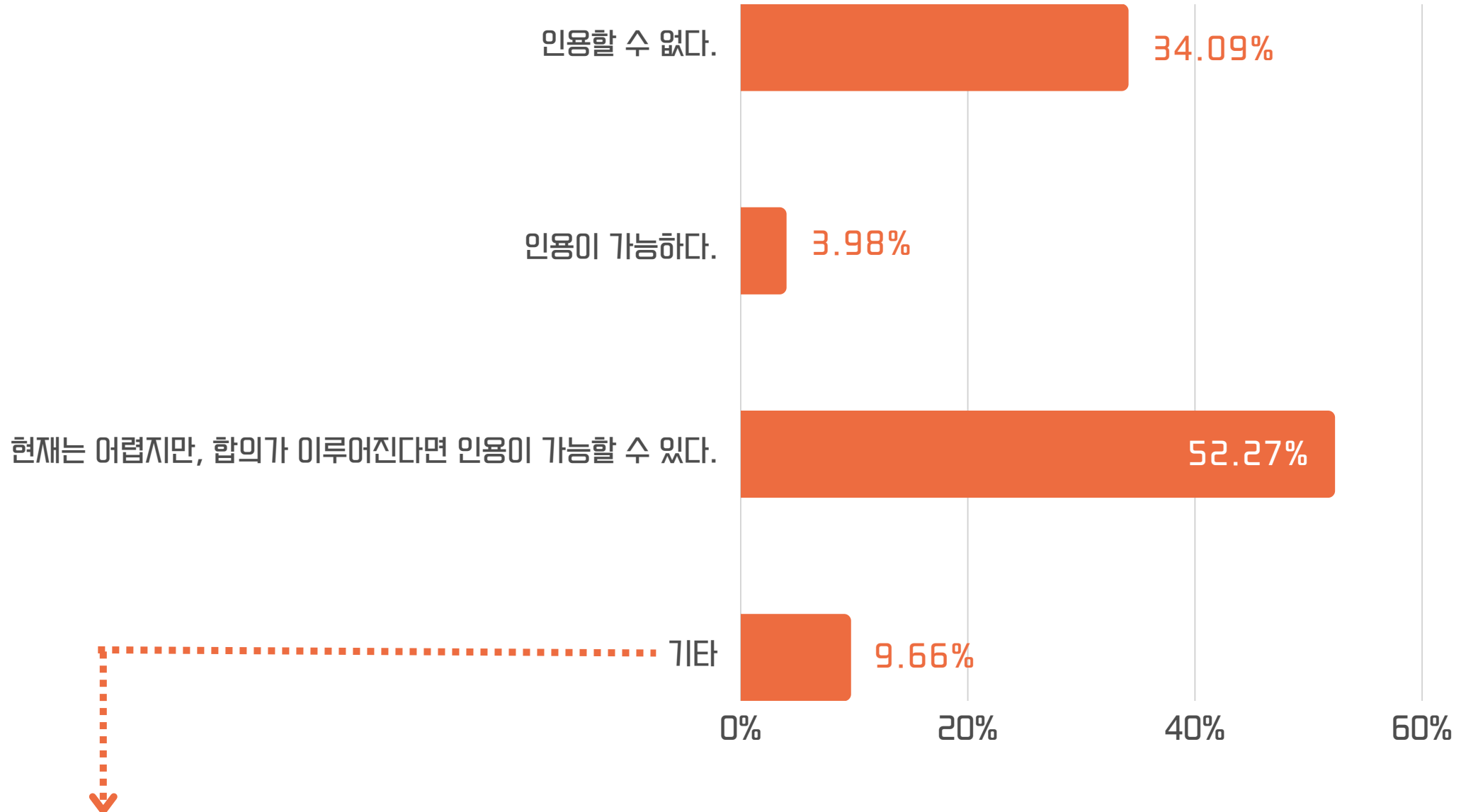
- 얼마나 자세하고 정교한지 테스트
- 코딩 샘플 확인
- 친한친구와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감정을 쏟아낼 곳이 필요해서

0% 25% 50% 75%

## Q2. 'ChatGPT'를 사용해 생성된 자료를 본인의 저작물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Q3.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에 따르면 인용은 인용 부호와 함께 출처를 밝혀 사용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로 되어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증명하는 역할로 변형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ChatGPT'는 같은 질문이라도 조건과 시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어 인용한 저작물의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도 인용 표기가 가능하고 생각하십니까?



- 논쟁의 여지가 크다 봅니다. 시험해 보니, ChatGPT 의 능력은 상당한듯 하면서도 주제에 따라서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 학습된 사전 지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수준 인간이 갖는 인식적 한계(정보처리력에서)를 보완해 주는 점은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특정 기술주제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반면, 통합적인 판단과 도메인 수준의 기술전략 연구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어, 그동안 지원 툴이 없어 방대한 조직적 지원이 없으면 힘겨웠던 산업전략 연구, 거시전략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과학기술 영역은 어차피 문제되지 않을 듯하고 인문사회 계열또한 표현의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구성 서사가 관건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보이고 정작 산업전략 연구는 방대한 자료를 키워드와 유사 개념으로 연결하는 작업이기에, 한 그룹이 도전해도 힘겨운 결과를 ChatGPT는 단숨에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입니다. 이 세번째 경우는, 기존 학문적 수준을 넘어선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새로운 지식-정보 처리에서 보조역할 일뿐, 새로운 관점, 주장을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이역시 아주 멀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용 여부 문제보다는, 인간의 지식 추구 활동 자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행위의 패턴으로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활용하려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학술논문에는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리포트나 보고서에는 합의가 있다면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 원문을 밝혀 인용한다. 혹은 gpt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해당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인용?
- "어떤 시점에서 물어본 GPT의 답변에 따르면.." 등과 같이 인용할 수는 있지않을까?
- text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원전을 사용자가 밝혀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에 대한것은 reference를 따로 붙이고, ChatGPT는 어차피 거짓을 말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고 로직을 깔끔하게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다. ChatGPT를 인용표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는 word의 문법교정이나 grammarly 같은 문법교정프로그램을 쓰지만 그것에 대해 인용을 하진 않는다.

- 기존에 보고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원전의 출처를 인용하여야 한다. ChatGPT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인용 표기를 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기존의 인용 표기 및 해당 결과 값을 출력한 시간 및 출력 화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용 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 chatgpt가 생성한 인용에 대한 검증 1차 책임을 사용자에게 두기
- AI 의 학습정보기반인 1차 reference 를 찾아 달도록 의무화
- 인용하면 안된다. 그러나, ChatGPT가 결과물을 제시하며 모든 출처(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저작권 보다 포괄적인)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출처는 ChatGPT인 것이다.
- ChatGPT에서 얻은 자료임을 명시하고, 주요 내용의 원전을 확인하고 참고문헌으로 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색 당시의 IP, 시분초 등 해당 자료가 생성된 맥락을 함께 병기하면 되지 않을까?
- 사용 톨을 명시함으로써 인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인용과 관련된 답변 전부를 별첨으로 전제하는 범위에서 인용은 가능하다고 봄
- 문장 '구'별로 인용포시





## Q3-1. 인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출처 표기를 하면 좋을지 제안해주세요.

- 최소: 입력한 키워드 (문구 그대로, thread 포함), 일시, 반복 여부. \*현재로는 기존 대화는 저장은 되지만 그런 결과가 도출된 전제가 포함된 전체 대화를 인용할 링크는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인용 용도의 링크를 제공하기 위한 ChatGPT 개발사의 협력이 필요할 듯
- 이 챗봇이 정말 그 자료를 만들어냈음에 대한 증명을 하여 덧붙여주어야 하고, 챗봇이 만들어낸 자료 출처와 다른 논문 등에 일반적으로 다는 출처 표기를 다르게 명기해 주고 그것이 본문만 읽을 때도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출처를 여러 각도에서 제시해야 한다. 1) 시간 상 가장 먼저 등장한 원문(물론 데이터를 가져온 DB 등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2) 가장 많이 인용된 원문 3) 가장 논란이 많은 원문(논란의 기준은 모르겠음...) 등등
- 사용된 문장과 영역 범위를 표시하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저자가 각 내용에 대해 확인 검증했음, 그리고 저자가 주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1. 답 인용 문구 @ChatGPT 또는 2. 질문+ 답 인용 문구@ChatGPT 이런 서식으로 멘션을 달아주면 좋을 듯 합니다.
- 검색을 통해 원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함. 원본을 찾을 수 없으면 인용할 수 없다고 생각함.
- 검색 날짜 정도 표시하면 어떨까요. ChatGPT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생성된 내용을 제작하기 위한 질문 또는 사용 키워드, 제작된 일시 등이 표기된 상태에서 인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과정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chatGPT 등의 AI가 어디에 관여했는지를 표기해야 한다.
- 언제 무슨 질문(prompt)을 어떻게 해서 얻은 답변인지를 명기하는 형태로 인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ChatGPT에 입력한 질문과 질문의 맥락을 명기 후 인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ChatHPT, 인용시간 2023년 1월 13일 11:49(24시간제로)
- chatGPT에서 매 답변의 고유성인식아이디를 발급하고. 이를 인용에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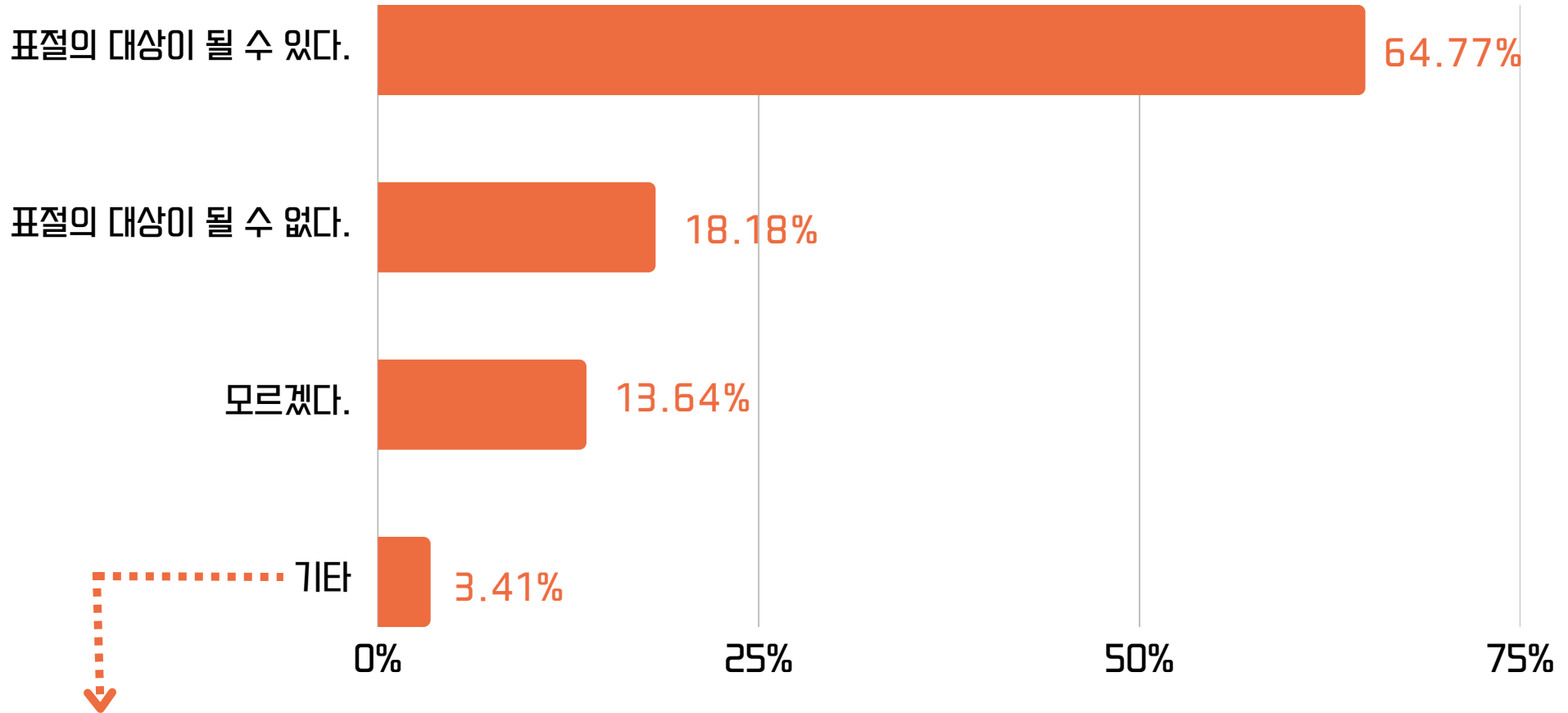


-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출처를 표기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사용한 인공지능 툴 경로, 추출 조건, 추출 시간 등을 표기하고 사용
- 저작물의 생성의 출처와 추출 조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인용
- ChatGPT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 ChatGPT를 이용했다고 명시
- 최소한 ChatGPT 를 사용했다는 표기는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 AI 챗봇의 답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언제, 어떤 질문/요청을 해서 나온 답변인지 명시하여 인용.
-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물어봐서 나온 생성물인지를 표기
- 출처 : 논문제목\_저자\_출처일자\_ by ChatGPT
- output이 아카이브될 수 있다면, doi로 ref
- 인공지능 경로, 검색 조건, 검색 시간 등을 표기
- Ai를 저작권법 등에 종속된 법인격으로 간주해 인용
- ChatGPT가 활용한 원자료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 이러이러한 질문에 챗GPT가 이러이러하게 답했다
- 어떤 질문으로 chatGPT를 사용하였는지 표기
- chat GPT 질문 원문과 질문 시점을 명기
- 챗봇 질문내용 및 답변, 각 주를 달면된다.
- 정확한 prompt 및 명령어, 구동시간 기재
- 인용.활용한 모든 소스.버전에 대한 표기
-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 명시
- 본문내용, chatGPT, 지시어 나열
- produced by ChatGPT



- "... FROM CHATGPT.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용방법 도출
- ENDNOTE, FOOTNOTE?
- 상용기기명기 혹은 상황첨언
- 콘텐츠 맨 앞과 뒤에 표기
- 날짜, 시간, 인용링크
- 검색된 원본의 출처 표기
- 인터넷 자료 인용하듯이
- METHOD란에 기재?
- CHATGPT 로 표기
- CHATGPT에서
- CHART GPT
- 캡처등의 방법?
- CHAT GPT
- 논문이름으로
- 논문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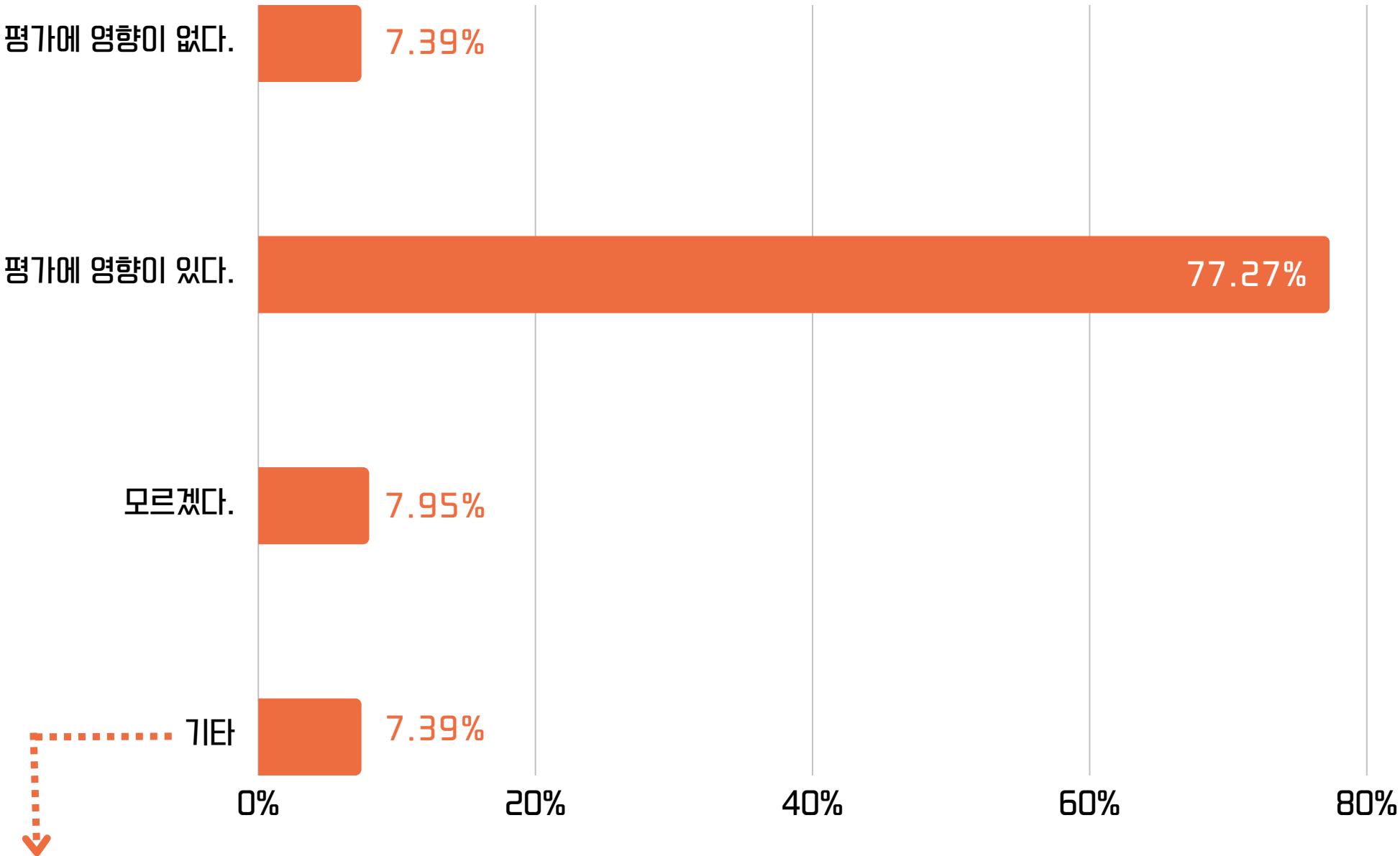
## Q4. 'ChatGPT'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인용출처를 밝히면 표절이 아니다.
- 표절 심사는 결과물로 하는 것이지, 특정 툴 사용여부로는 매우 어렵다
- 전문적인 내용이나 수치 등이 포함된 경우 출처를 분명히 확인한 뒤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챗gpt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 인용을 한다면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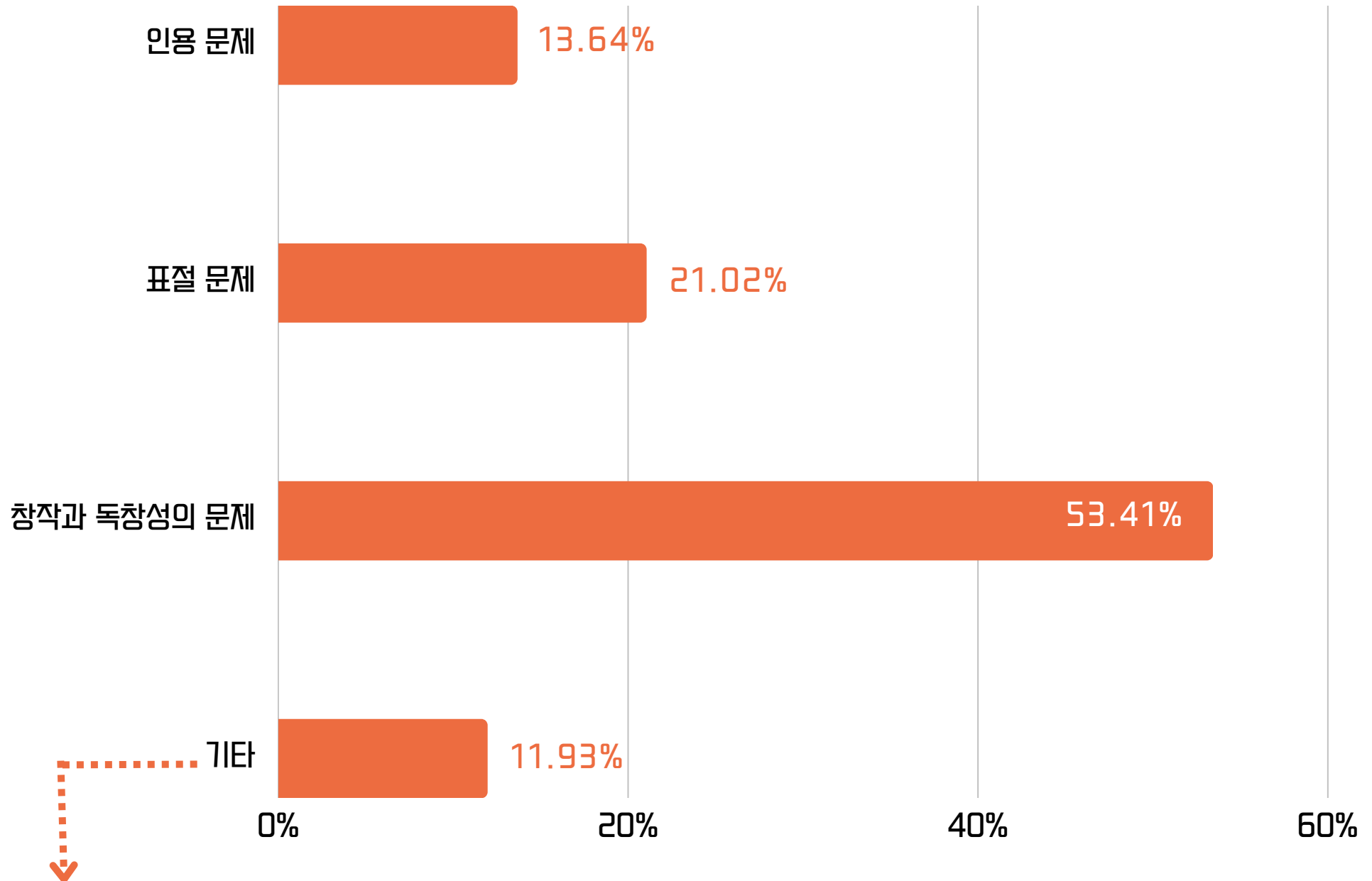


Q5. 만약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ChatGTP로 생성한 자료 일부 혹은 전체를 과제로물로 제출 하였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작성한 과제물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사용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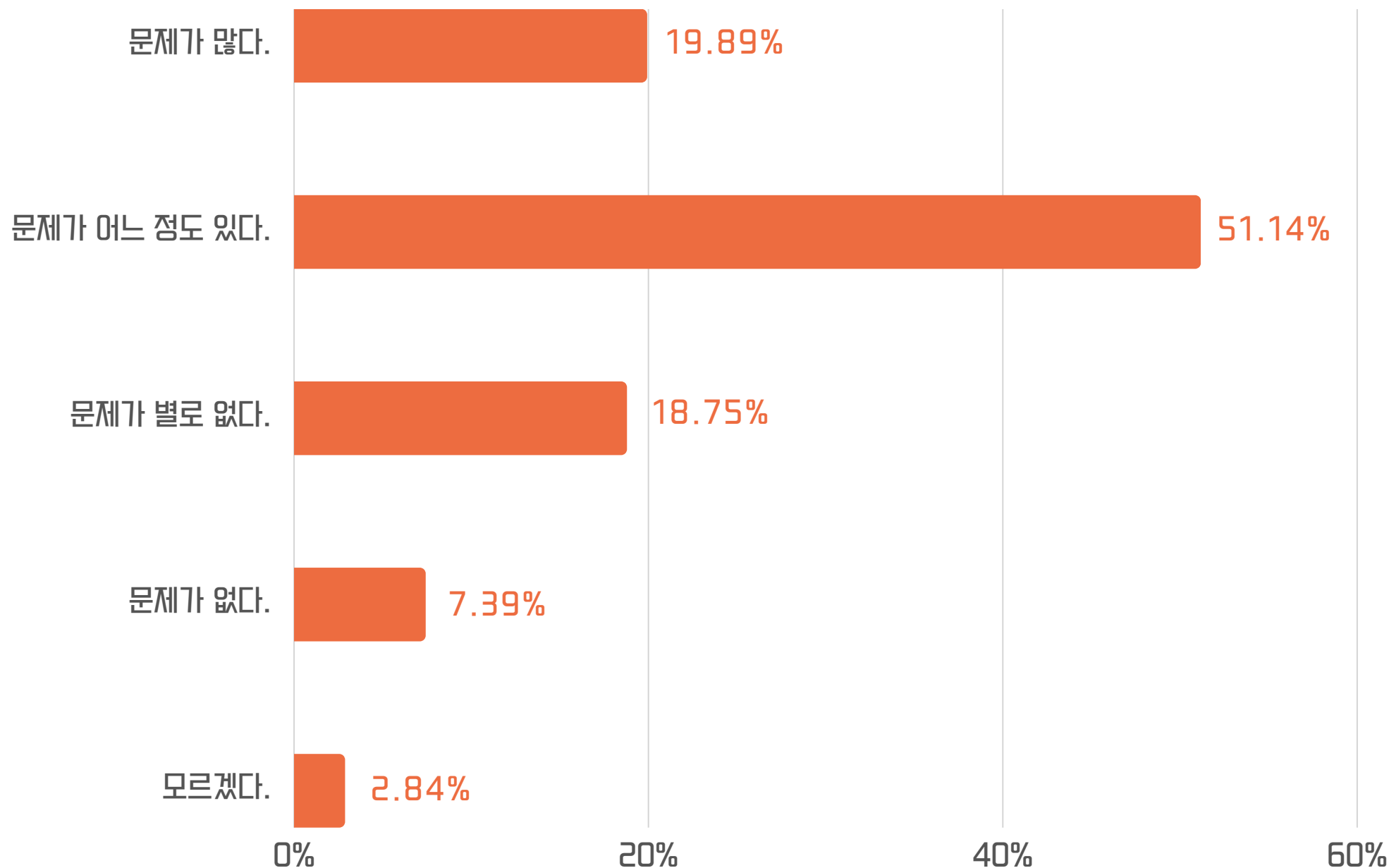
- 평가자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저그런 형식을 갖추고 분량을 마춘것에 점수주는 수준이라면 본 논의가 무슨 상관이며, 만약 내용의 구체성과 흐름, 논리적 연결성과 기성 학문과의 연결성을 중점으로 보는 깊이라면 이 또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량으로 그저그렇게 처리하던 관성이 도전 받는 것 아닐런가요?
-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이 여건 상 과제물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데(과제를 도와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무료 ChatGPT에 다른 학생들과는 구별되는, 좋은 질문을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를 것 같다.
- 순수창작물에 가깝다면 ChatGPT로 창작한 것임을 밝혔을 경우 창작이 아니니 영향이 있고, 논설문이라면 원전을 밝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직접 작성한 과제물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어차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ChatGPT가 생성한 문장에서 배워야 하는 점은 원지에 대해 가르치는게 낫다.
- 클로즈북과 오픈북 테스트의 평가 기준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라 생각한다. 단 학생이 챗gpt를 사용했음에도 그걸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징계가 필요하다.
- (학생이 밝히지 않는 한) 인공 지능 활용 여부를 알기 어려워 평가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사용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과제를 내고 구두시험으로 내용 이해를 평가할 것
- 애초에 ChatGPT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로 과제를 내야 한다.
- 직접 인용 사용은 평가 불가. 내용 재확인 후 사용은 평가
-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
- 과제의 종류에따라 다릅니다

Q6. 'ChatGPT'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해 저작물 작성 시 글쓰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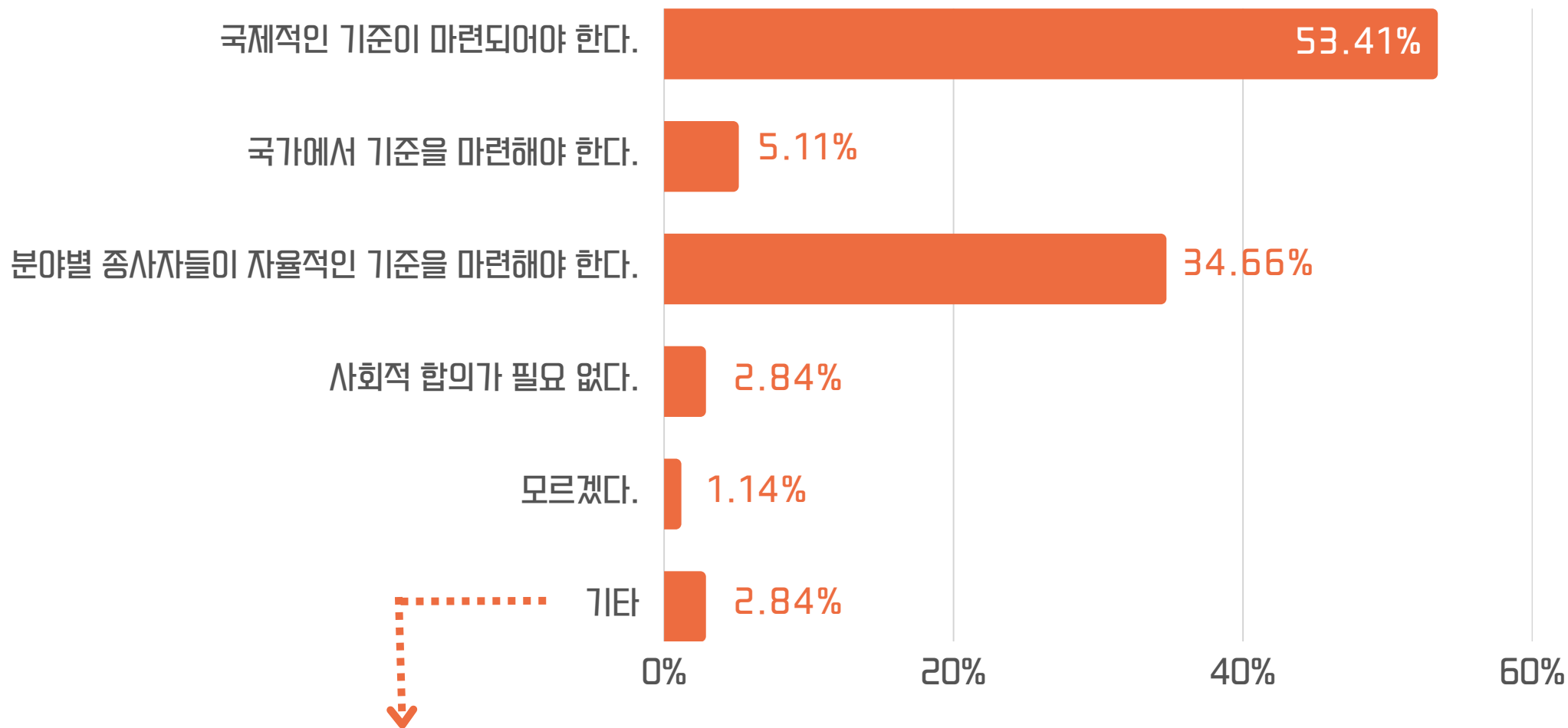


- ChatGPT는 도구일뿐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본질을 중요시 한다면, 그 것을 식별할 안목이 있다면... ChatGPT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 수많은 저작물의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스탠더드로 자리잡을 것이다. 윤리문제 따지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바뀌어 뉴노멀이 될 것이다.
- 위 문제 모두 + fake news와 같이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판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위험
- 학생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자 과제가 주어지는 것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개인의 사고력은...어디에....
- 사실확인 관련문제. 인용된 reference가 제대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 위 3개 문제가 모두 있다. 특히 다수의 원출처가 섞인 표절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 ChatGPT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의 내용에 대한 시비 여부 등에 대한 판단
- 사이비나 사기꾼이 많아지는 문제
-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영역. 기획임
- 사실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
- 다량의 문서 생성 가능
- 진실성 검증의 문제
- 자료의 신뢰도 문제
- 상기 세가지 모두
- 게을러질 것 같음
- 상기 3가지 모두
- 별 문제 없다
- 위 모두 해당
- 셋 다 해당
- 없다.
- 없다

Q7. 인간이 구축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원작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모아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료를 제공하는 'ChatGPT' 자체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Q8.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저작권, 인 용, 표절 등)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국민/시민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규범을 시민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규제나 합의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듯 하다.
-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지 회의적이다
- 위에 명시된 모든 노력이 필요 하다
- Robot.txt처럼 기술로 해결



Q9. 챗봇 AI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된 콘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윤리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 현재 상태의 ChatGPT는 앞서 질문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답변의 신뢰도가 100%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억지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ChatGPT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활용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전체를 고스란히 사용해서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내용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정교한 챗봇 시가 발표되고,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테니 당장의 윤리적 판단보다는 사회적으로 좀더 미래를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ChatGPT에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각각 그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했다는 등의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이 김무성이라는 오답도 말한 적 있습니다. 항의하니까 정정했지만, 이런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이 지식경제부 장관 및 각종 경찰 직책 등 온갖 직책을 맡았다는 허위사실도 태연하게 답으로 내놓을 정도입니다. 허위로 참고문헌 논문 제목을 쏟아내는 걸 봤다는 증언도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공론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소름돋습니다. (이미 러시아 등 독재정권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공론장을 왜곡하려 한 시도도 밝혀졌고요.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댓글부대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두렵습니다.)
- 계산자를 더이상 쓰지 않고, 전자계산기도 거의 쓰이지 않고,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돌리듯이 문헌작성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런 기술 구현 가능성이 인간이 만들어온 수많은 콘텐츠에 기반하기에 이를 무료나 저렴하게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만일 일일이 따져서 보상하려 하면 그게 더 발전을 가로막고 고비용을 초래할 거 같다.
- 챗봇 아니어도 표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인용하는데, 그 책이 저자는 인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군요. 제가 그 책의 저자를 인용하면 그 책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용을 안할 수도 없고요. 인용과 표절 자체가 이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인용은 한가지 문제를 더한 것 뿐입니다.

- 이 문제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저작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식을 '연구'에 적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독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저작물 특히 연구 논문에 사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법을 바로잡아주거나 번역을 해주는 등 유효하게 활용하면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얼마든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막기만 하는 건 머신러닝이 경사하강 등을 자동으로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과 별 차이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활용 자체에 제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윤리적 규범의 생성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논의 및 합의 기구가 운영되어야 할 듯.  
1) AI챗봇에 의한 창작물(?) / 생산물에 대한 창의성과 표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또는 방법 2) AI챗봇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 여부를 정하는 기준 또는 방법
- 미래의 흐름은 AI 콘텐츠 문화로 흘러가게 된다. 문제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코딩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렸을때 부터 코딩 언어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학습이 부족하다. 모두 삼성 스마트폰(반도체)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 저작권도 문제지만 GPT-5가 나오면 여러 검색 도구들과 쇼핑몰 플랫폼 또는 사전들도 위협을 받을 것이고 이에따른 법적 논의가 기술을 따라다니며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문제가 해결책 이 준비되기 전에 발생할때는 이미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 등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분야에 따라 토론과 합의를 통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한다. 물론 법률적인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 선택적 활용은 창작에 더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과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현재로는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을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함
- AI를 통해 발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직접 사용은 피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원문의 확인 및 인용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함. 그러나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콘텐츠가 AI CHATBOT에 의해 인용될 경우, 인용 주체에 대한 신원공개, 인용일시/장소/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CHATGPT 에 의해 활용되었다는 것을 인용되어 생성된 콘텐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아웃풋 형태 개량과 AI와 같이 작업을 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형식을 마련하고, 이를 벗어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비판능력이라고 생각함. CHATGPT가 산출한 정보가 어디까지 타당하고 어디까지 쓸모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용자가 할 수 없다면 무용하고 더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됨.
- "CHATGPT를 스크리닝이나 탐색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결과물에 대해 REFERENCE CHECK가 필요함
- CHATGPT를 활용하려 산출하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임 "
- 방대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도구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의 존재가 사회적 격차로 고착되거나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넓고 깊은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는 매우 다양하고 분야에 따라 활용 방법과 쓰임새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매우 정교하게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CHATGPT는 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기반한 아이디어 재생산을 수행하는바,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사유화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의 맥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함.
- AI 가 "학습"을 한 지식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지적 탐색의 지평을 빠르게 늘리는 방식은 긍정적이나, 수동적 지식 수용/전달자와 비판적 전문가의 차이에 대한 토론과 이해가 필요하다.
- CHATGPT를 통해 창작되었다는 것만 밝히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윤리적 책임이 CHATGPT나 그 제작자에게로 1도 돌아가서는 안된다.
-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간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편집행위는 CHATGPT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키워드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시대적 윙고 그림이 반영되지 않는 상당히 극단적인 관점의 설득력 있는 글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챗봇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표절의 기준이 재해석과 재생산의 범위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할 듯. 실제로 그 기준을 잡기는 아주 어려울 듯.
- 앞으로는 모든 저작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공지능의 도움에 의해 작성될 것이므로,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신기해 할 필요가 없다.
-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계와 교육계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거부할 수 없는 인공지능 세상이 다가오므로 이에 맞게 윤리 문제도 합의에 의해 새로운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듯 합니다.
- Generative AI 의 활용을 막을수는 없을것입니다.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힘을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콘텐츠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
- 다른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활용하는데는 다소 문제는 있다고 봄."
- ChatGPT 사용한 것 자체를 표시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해져야 할 듯 합니다.
- 논의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일이고 적응하는 문제. 되돌이킬수없음
- 전문가를 경시하는 풍조가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도 너만큼 쓸 수 있어!
- ChatGPT의 결과물의 질을 평가하고 설명하고 모니터링해야한다.
- 인간 개인의 학습에 도움을 받는 정도로 활용해야 할 듯.
- chatGPT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윤리관 논의가 필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
- "AI ChatGPT는 인용되어서는 안된다.
- 저작권 허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콘텐츠 저작권 자동 표기 삽입
-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제시
- 아직은 더 봐야겠습니다.
- 도구 사용 교육

## [숲사이 Quick Poll] ChatGPT 사례로 본 AI 생산 저작물 활용에 대한 윤리 인식 조사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AI) 챗봇 'ChatGPT'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성능과 기능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전반에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부분의 한 단면인 저작권, 인용, 표절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ChatGPT' AI 챗봇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쓰기 저작물 활용에 대한 윤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설문 결과는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 ESC 숲사이(soopsci.com)

□ 대상: 과학기술자와 일반 시민

□ 기간: 2023.01.12. ~ 20.

□ 문항: 10문항 (2분 예상)

□ 문의: soopsci@esckorea.org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및 결과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자료: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인공지능은 표절할 수 있는가 (한겨레, 2023-01-05)

※ ChatGPT는 무엇인가요?

ChatGPT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활용하여 개발된 챗봇용 언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대화식 텍스트, 예를 들어 채팅 대화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되어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언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ChatGPT는 챗봇, 가상 대응 시스템, 대화 시스템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있습니다.

(본 내용은 ChatGPT(<https://chat.openai.com/>)를 사용해 받은 답변입니다.)

※ 숲사이 Quick Poll이란?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이야기해 볼 최근 이슈를 발굴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현안에 접근해 보는 설문조사입니다.